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 | | | |
|-------------------------------|--|---|---|
| 발행인 발행소 | 동지 회중앙부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 Publisher Address |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
| 사장 주필 권좌 발행도시 발행일 | 리 정 김 창 850-849 1754 음력 7월 19일 금요일 | President Editor Telephone Subscription Issue No. Date | Chung Kun Lee Donald C.W. Kim 850-849 \$10.00 per year 1754 August 1, 1969: Fri. |

닉슨대통령 인도 도착 간디 수상과 회담

(뉴데리 7월31일 밤, 에이피) 동남아시아역방중인 닉슨대통령은 31일 오후, 간디 수상을 위시하여 인도정부수뇌, 고관과 각국대표다수의 출장을 받고, 뱅콕으로부터 뉴데리로의 파랑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96도의 더위속에서 약천명의 군중이 환영,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의 목표에 향하여 가고, 인도국민이 인도에게 가장 크다는 목표에 향해서 협력한다" 라고 인사하였다. 닉슨대통령이 공항으로부터 뉴데리에 향하는 도중과, 잘나강변의 모한다스.간디.기념 묘지에 화환을 올리러가는 도중에서는, 환영의 군중에 서서서, 각국백명의 비에트넬 반란시위대가 흑색과 적색의 깃발을 흔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소리치기도 있었다.

닉슨대통령과 간디수상의 회담은 시간만에 걸쳐서 거행되었다. 회담후에는 간디수상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다음 과감이 말하였다.

1. 비에트넬전쟁에 관해서 미국은 이제야 인도의 정책에 가까워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도는 최초로 비에트넬인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없이 비에트넬의 장래를 결정하여야 하며, 외국군대는 권원철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1. 비에트넬이 공산화되더라도 인도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공산주의가 되는가에 달려 있다. 공산주의에는 지금 세계에 각기 각형의 형태가 있다. 그중에는 어느 정도의 자유화에 향하고 있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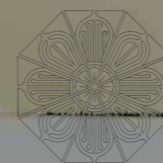
1. 아시아로부터 영국과 미국이 손을 떼지 않으면서 정치적, 군사적 공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일시적인 관제에서는 몇개의 대국이 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인도는 아시아제국간의 지역 경제협력은 찬성인데, 순군사적인 조약에 참가할 마음은 없다. 닉슨, 간디 회담을 8월 1일 아침 다시 거행될 예정이다. 그후에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마음에 잘 안다.

닉슨대통령 비에트넬을 방문

(사이곤 7월 30일 밤, 에이피) 타이에 체류중인 닉슨대통령은 30일, 임중간 경계하에 남비에트넬을 5시간 이상 방문, 사이곤에서 추남비에트넬대통령과 2시간만에 걸쳐 회담한 후, 사이곤 근처의 데이안 미제 1보병사단기지에서 미군장병에 대해 연설하였다. 닉슨대통령은 두 번 남비에트넬을 방문하였는데, 모두 감란단의 미군보급기지들 방문하였을 따름이다.

(제 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미 대통령 첫번의 사이곤 방문

미 대통령이 사이곤을 방문한 것도, 미군 권유기지를 취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에 있어서 엄중한 보안체제와 동시에 보도 통제까지, 대통령이 라이에의 기도에 울드가지는, "니슨 남비에스남방문"의 뉴스는 원인이 정지되었다. 주대통령과의 회담에 입하여 니슨대통령은 오지 다음적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화평을 가져오는 고집의 문을 여는것을 위하여 우리들 될수있는한, 꼭 우리가 할 모든 노력을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상대측이 우리와 고집의 자리 안저, 산투를 정지하는 방법에대해서 진심도 도의하여야한다." '회담후에 양대통령이 나란히 매디오.레페넬곤방송에 나섰을때에도, 니슨대통령은 이점을 강조하여말하였다.

"북비에스남, 남비에스남을 풀지않고, 미국이 너무 오래 달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시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않을만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한다. 그것은 남비에스남의 사람들에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하는 권한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동남아세아의 단 하나에도 같은 권한이 부여되도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한다" 백아관속세의아면, 양대통령은 이미 실시중의 2만5천명의 예산이상의 미군전력에대해서 협의하였는데, 절른을 짓지못하였다고한다. 또 현재의 전함의 순항상태도 드러, 양대통령은 이것이 확실히 적축의 전우축소라면, 절른은 더 빨리 실시되리라 믿고 판단하였다고한다. 그러나 회담후의 성명에서는 이점에대해서의 발표는없었다. 주대통령은 미군철병의 판단기준으로서 (1) 화평고집의 진전 (2) 적의 경제의 감소 (3) 남비에스남 병력의 증감 등을 들었다. 방북에 돌아온 니슨대통령과 부인은 다들 라이수상의 비공식 환관회에 출석하고, 7월 31일에 신도에 양해서 출발한다.

노 피-센트 부가세 반년 연장을 가결

(의심은 7월 31일 밤, 에이미) 상원은 31일, 소득세 10% 부가세의 6개월 연장법안을 51대 48의 표로 가결, 이어 니슨대통령이 고교한 1개년 연장의 품의를 41대 59로 부결하였다. 하원에서는 이미 1개년 연장이 가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의해 부가세의 6개월 연장이 본격적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표결은 금회기중에 결번한 세계개혁법 안의 성취를 목적으로하여 압력을가하기 위해, 부가세 연장을 6개월도 안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상원민주당수뇌의 승리이다. 6개월 연장법안의 표결의 내용은, 찬성이 민주 45, 공화 6, 반대가 공화 37, 민주 11, 기권 (민주 1백가반의원) 1였다. 공화당의 찬성표 6표는 다그슨상원원내총무, 자릿스, 굿델, 에이켄, 케이스, 베이커의 제외원이다.

오기나와 반환고집 최후 단계 기지 자유사용이 초점

(동정 7월 31일 밤, 동동) 오기나와 반환고집을 사또수상과 아이지 의상과 타자스미국무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제국화"의 정치적충을 따지고, 반원위의 오기나와 미군기지의 사용에 대해서, "특별한 결정"을 하지않고 오기나와 반환문제를 해결할수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번의 일련의 회담에서 더욱이 기지의 자유사용에대해서 충증을 구하고있는것이 명백이되고, 미측은 금후에도 이것을 고집하여올 형래에있다. 금후의 해담은, 9월중순의 아이지 의상을 목표로 미측 마이야미대사, 후나이다오기나와 반환문제당공사의 일본외무성감부사이의 사무처에서 거행되는데, 미국의 태도에따라서 심하고 엄격한 절충이 될것이다.

(제 3편에 계속)

(제 2편으로부터 계속)

7월 31일의 아이지 의상과 타자스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은 9월중순의 아이지 의상의 의상은 방문까지에 일.미간의 의결을 종합한 성안을 받도록 4상방에서 노력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중국의 핵협의의 정도등 아세아정세를 사고도는 분석에서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이것에 관해서 반원위의 오기나와 미군의 태세에대한 일.미간의 견해에 큰 차가있는것이 확인되었다. 최대의 문제점은, 미측은 가능하면 현상대로, 불가능하면 상당한정도도 자유사용할수 있는 보증이 필요하다는것이였다. 일본측은 "어디만큼 보증"을주면, "특별한 결정"에 관해, 이어서는 현행안보조약의 개정에 연결될 수미가있다고보고 강한 난색을 보였다.

일본측은 기본적인 태도로서 "일미의 상호신뢰와 사전협의를 적정이 순용한다면 구동에있어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에는 지장이 없다"는것을 강조, 어디까지나 현행안보조약 기준안에서의 반원을 요구, 미측의 재고려를 촉구하였다. 사또수상이 7월 31일의 타자스장관과의 회담에서 "핵"을 배는것을 강조하는안면, 일미의 상호신뢰와 양국간의 의혹의심의 해소가 당면한 오기나와 문제해결의 기초라고 강조한것은 이러한 생각을 미력한것이다. 오기나와 반환을 사고도는 일미간의 의견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니슨정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의 일미무역경제합동위원회에대해서 아이지 의상은, 회의종료후의 내외기자회견에서 "예상이상의 성과"라고 말하였지만 동서한 타자스장관도 "양국간에 우정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회의의 의의를 평가하고, 또 오기나와 반환문제에대해서 "11월의 수상방문까지에 4상방이 만족할만한 해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고있는데, 이것은 대립중에도 협조정신이 지속되고있는것을 입증하는것이라고보아도되므로, 정부는 "상호신뢰"를 기조로 계속 최선의 노력을 안 방침이다.

달기 비위를 차차 해명

(욕스은 우주중앙소 7월 31일 밤 에이미) 달기관대핵연구소의 구테이그.원사박사는 30일 "아틀로 11호의 3비행사의 핵실험사는 거의 끝났는데, 그결과를 극이 정상이고, 달기관의 절속에의한 변위는 일체 보이지않는다"라고 발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또 푸군의 취에대해서, 분란파단단의 조직성분을 주사하는 준비를하고있다. 오늘 아틀로 3비행사는 각리시설의 유미장비도 동토의 우주비행사와 달기행에대한 도의물하였다. 들고있는편은, 11월에 다시 달에 가는 아틀로 12호의 콘라트.유너, 고른, 빈의 3비행사도 거있었다. 아틀로사령선 "모롬비아"의 선주진은 30일 연구소에도착, 각리시설에들어갔다. 모롬비아대략 마르니지진연구소의 제리.테이람박사는 30일, 연구소에서 기자회견, 달의 지진관측에서, 달에는 지구와같은 지각이 존재하고, 전에는 모롬까지 놓아있던 천체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달지진계의 분석에의하면, 달의 지각의 두께는 20기도이다. 어때까지 달의 지각이 있는가 임는가에대해서는 사실이 대립하여있었는데, 이문쟁에도 일단 단장을 진것이다. 또 이 달의 지각의 존재가 명백이된결과, 달의 중심지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뜨거운 핵이있는 가능성이 충분이있다는것을 표시하고, 달은 에너우기에찬 뜨거운 천체라고 주장하는 과학성에 극이 유력한 증거를 가져온것이다. 또 모스드래리아 국립대학 마스.에이머박사는 달의 면적의 제1회회복본세의 결과를 발표, "조사한 한손의 면적중에는 40의 과학요소가 보였다."라고 말하였다.

켄네디의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

(의심은 7월 31일 밤, 에이미) 에드워드.켄네디상원의원은 31일 국회에 출원, 기자단에대해서, 72년의 대통령선거에는 출마하지안한다고 확언하였다. "출마하지안한다는 결심은 어디까지나 철의하지안물리는가" 라는 질문에대해서 켄네디의원은 "그러라. 만일 상원선거에 재선된다면, 나는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각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제 4편에 계속)



(제3편으로부터 계속)

"어떠한 새로운 상상이 나타나더라도 출마할 마음이 업느냐" 라고하는 질문에 동의원은 "그러하" 라고 대답하였다. 동의원은 또 상원의원을 사직을 맡겼인가의 결심을 짓기 위해 때때로 추세를 주선거리에 오소하였을때 "자진해서 대립하여준" 주선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사건에 대해서는 금우 아무 설명을 내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의제의 사람으로서 동원하였기때문에 보도진 외에도 국회의원과의 권쟁력이 "켄네디 구경" 때문에 밀려와서, 켈네디가 도착하였을때에는 차에서 나오지 못할 광풍이나 있었다.

파리 회담 북비에트남대표, 워싱턴을 공격

(파리 7월31일 밤, 에이피) 31일 거행된 파리 워대 회담 제28회 본회의에서 스안.오이 북비에트 남수석대표는 니슨미대통령의 사이곤방문에대해서 "이방문은 미국이 남비에트남으로부터 손을 떼는것을 거부하고, 추, 기, 쥘 정권을 유지하려는것의 징기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사이곤 정부내에서 대립

(사이곤 7월30일 밤, 중동) 최근 사이곤에서는 대통령고문이 매방전선과 접촉한 혐의로 매일편 외에, 국가경찰의 조사를받는다는 사건이 일어나, 큰 반향을 불러고있다. 취조를 받기 위해 구속되어있는것은 권.반.은씨도, 상업장관등 각도의 경력을 가진사람으로, 68년만경부터 정치문제에 관한 대통령고문으로 임명 되었었다. 대통령고문이 이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받는다것은 여태까지 업는일이요, 사이곤정부의 고견다수를 포함한 정치문제에 반권하지 않나 주목되고있다. 소식통에의하면, 이사건에는 정부요인등 약40명이 관계하고있다고하는 말도있고, 취조여아오는 권.반.우대통령에도 영향이 미칠는지모른다고한다. 또 이사건이 또한에 나타난것에는 우대통령과 권.반.쥘수상과의 대립대립이라고한다. 또 이사건은 궁지에들어간 사이곤정부의 현상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할수있다.

감사의 말씀

본인의 가장이신 박봉조씨께서 숙환으로 7월12일에 별세하여 19일 장례시에 원근각지에서 아름다운 화속과 물집까지 보내서 조의를 표시하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례시에 태도하여, 몸소 수고하여주신 어머분들을 제제미 차차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울뿐일때, 여러가지 불편한일로 래평양주보의 임직원들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된것이 폐의가 아니오나, 사람으로 권서하시고, 또 친애하는 어머분께 항상 건전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1969년 8월1일 미망인 박 닷순 자손 일동 고백

지난 7월20일 본인의 자손들이 마련하여준 저의 진감관지에 여머원지께서 원근을 가리지안고, 참가아서서 저의 과거와 장래를 축하하여주시고, 또 여러가지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데대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이며, 여러분의 수의에 감사하고있는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인이 이와같은 성대한 관지와 아름다운 혜택을 받는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저는 또 미국에있는 자녀들의 초침으로 그곳에서 생일 관찬을 받게 되었으며 수일내에 곧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후에 여러분을 만나서 다시 인사의 말씀 드리게될것을 믿고있습니다.

사 망

류 매나 율립

미주 캐리 율리아 율남그림이라는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던 고 김영태씨 모인께서는 본래평양주보를 오랫동안 애호구람하시던 독자였었는데, 돌연히 별세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본사의 직원일동은 김영태씨의 별세를 슬퍼 초상하고있다고한다.

